

깊은 울림과 유머 ...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다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중 자신의 대형 사진이 걸린 벽앞을 지나는 우체부 모습.

다큐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밤셸' '류이치 사카모토의 코드' 상영

바르다·JR 프랑스 누비며
보통 사람들 사진에 담고
'과학자' 반전 헤디 라머
암 이겨낸 사카모토 음악
광주극장·CGV 등서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에 등장하는 영화감독·사진작가 배우 아녜스바르다와 사진작가 '만담 콤비' 같다. 무려 55살 차이가 나지만 함께 작업을 진행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고, 감동적인 작품도 완성해나간다.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숲속에서, 북극에서, 비오는 정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잡아낸다. 암 판정을 받은 후 중단했던 작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이야기는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코드'에 잘 나타나 있다. 아름다운 배우 헤디 라머의 숨겨진 이야기는 흥미롭고 경이롭다. 영화 '밤셸'이다.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세편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극적인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아티스트들의 삶과 작품을 묵묵히 따라가는 영감을 통해 만나는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그들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 또다른 예술가들과의 인연 등 흥미로운 부분도 많다. 세 영화 모두 등장 인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영화는 광주극장과 CGV 등에서 상영한다.



'밤셸'



'류이치 사카모토의 코드'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장 쾅고다르 등과 함께 프랑스 누비바그를 이끌었던 거장 아녜스바르다와 유명 사진작가이자 설치작가로 타인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 아티스트'에 뽑힌 JR(장 르네)이 등장하는 영화다. 두 사람은 대형 프린터가 달린 포토 트럭을 타고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대형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통해 도시를 '갤러리'로 만들어 나간다.

그들이 담아내는 얼굴들은 다채롭다. 마음

의 우편배달부, 광산촌에 마지막으로 남은 주민, 항만에서 만난 노동자의 아내, 다른 농장과 달리 염소의 뿔을 잘라내지 않고 애써 키우는 부부, 온몸을 다해 춤추듯 종을 울리는 종지기 등... 그들의 모습은 자신이 일하는 농장 앞에, 부두를 가득 메운 대형 컨테이너 박스에, 노르망디 해안의 대형 바위에 부착된다.

그들이 찍는 사진 속 인물에 하나 하나 동화되며 마음을 내주다보면 어느새 88세 할머니와 33살 청년, 두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작품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마음이 유쾌하고 따뜻하며 영화 중간 중간 JR이 정성스레 아녜스바르다의 눈과 손, 발을 찍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또 '결정적 순간'으로 유명한 사가 앙리 카르테에 브레송과 장 쾅고다르 등 불쑥불쑥 등장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만나는 재미도 크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코드'는 인후암 판정을 받은 후 음악 작업을 중단했던 사카모토가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해온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돕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후쿠시마 현장 가까운 어느 강당의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조명만을 켜놓은 채 그 유명한 'Merry Christmas Mr. Lawrence'를 연주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다. 또 쓰나미 현장에서 견져 올린 피아노를 전혀 조율하지 않고 두드려 리듬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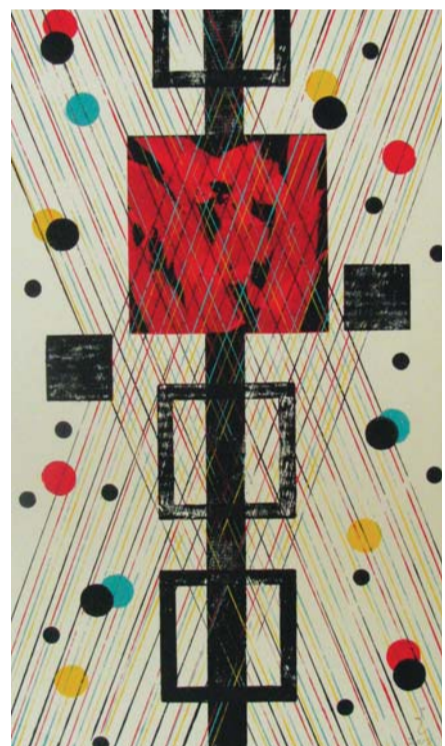
영화의 백미는 작품 내내 흐르는 사카모

토의 음악과 그가 영향받은 음악들로 영화를 보고 나면 대표작 '레인'을 비롯해 바흐의 '코랄 전주곡' '골드베르크 모음곡',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와 음악 등을 듣고 싶어진다. 그는 영화 '마지막 황제'(1987)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음악상을 동시 수상했다. 이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등과 작업했고, 한국영화 '남한산성'의 음악도 맡았다. 현재 서울 문화공간 '피크닉(Piknic)'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 특별전 'Life, Life'(10월30일까지)가 열리고 있다.

영화 '밤셸'은 194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헤디 라머(1913-2000)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그녀는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의 모델이었고, 여성 히어로 '캣 우먼'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 영화 제목 '밤셸(Bomshell)'은 '섹시한 금발 미녀'라는 뜻과 '몹시 충격적인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녀의 삶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다.

한 때 '에로 배우'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만을 소비했지만 그녀에게는 감춰진 또 다른 삶이 있었다. 다섯 살 때 뮤지컬을 해체·조립했을 정도로 그녀는 '발명이 취미'였고 '주파수 도약'으로 알려진 아이디어를 고안한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놀라운 반전이다. 구굴은 2015년 '헤디 라머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는 기념 영상을 통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과학자 헤디 라머'를 기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라이 요시노리 작

한·일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한마당

'다부기전' 29일~7월 8일 하정웅미술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한마당' '국제장애인비장애인문화예술교류협회 2018 다부기전'이 29일부터 7월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올해 5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한 미술단체 초대전 선정 단계로 밝혀 열리게 됐다.

전시 제목인 '다부기'는 순우리말로 '더불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신명난 문화예술한마당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전시는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일본 작가들도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광주 지역 작가 78명을 비롯해 서울경기(15명), 충청·대전(8명), 대구(8명) 등에서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아마모토 루미코 등 장애인·비장애인 작가 15명이 작품을 전시하는 등 모두 130여명이 함께한다.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전통악기 공연도 열린다.

오후 3시 식전 행사로 전통 난타 공연,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가 열리며 올해 처음으로 아라이 루이코 등 일본 연주자들이 샤미센, 고토 등 일본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은혜학교 학생들이 '다부기전'에서 선보일 '꿈나무 빨래'.

그밖에 광주 은혜학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T셔츠 그림작품 250여점을 '꿈

나무 빨래'라는 행사로 선보인다. 전시 오픈 오후 5시.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 확산 지역활동가 모집

문화관광체육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일환으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활동가 130명을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인문 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은 인문 분야를 전공한 인력들을 지역 문화시설(6곳)에 파견해 인문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문 활동 유형은 인문 분야의 교육, 강연을 담당하는 '교육·강연형'과 인문 관련 동아리 등을 운영하는 '기획·운영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강연형'은 미취업 상태의 인문계열 석·박사를 자격요건으로 월 20시간 한도로 활동을 지원하며 '기획·운영형'은 미취업 상태의 인문 및 인문융합계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월 30시간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홀을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대표 맛집**

광주 **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음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